

개화기 시가문체의 변이양상

김 영 철*

I. 서 론

개화기는 신구질서의 갈등과 혼효가 고조됐던 전형기였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있는 개화기 시가는 그러한 전형기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여러 측면에서 갈등과 혼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르면에서 가사, 시조, 한시, 민요 등의 전통시가의 지속과 찬송가, 신시, 창가, 자유시 등의 신흥시가의 발흥이 혼효상태를 이루고 있고, 시내용면에서 척사, 보수의 국권의식과 문명개화의 진보의식이 또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4·4 조와 7·5 조 율격의 대립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신구지향의 갈등과 혼효양상은 시가의 표현매체인 문체적 측면에서도 현저한 특질로 드러 나고 있다. 시의 언어가 그 언어를 수단 아닌 사물로 다룬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전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학에서의 언어상의 변이는 그것이 표현의 직접 매체인 이상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개화기 시가는 그 문체의 선택에 따라 사상, 감정의 형상화가 상이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한문 및 문어체일수록 經世學的 이념가치의 표출로 기울고 있고, 국문 및 구어체일수록 감성적 서정가치의 징후를 드러 내고 있다. 관념표출과 정서표출은 한국 근대시가의 초기 단계에서 변증법적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가의 문체변화의 추이는 당대의 일반 언어체계에 긴밀한 대응관계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화기의 일반 언어체계의 변동은 개화기

* 대구대

시가문체의 변화에 직접적인 계기를 이룬다.

또한 표현매체의 선택 뿐 아니라 띄어쓰기, 구두법 등 조사법의 변화도 근대시 형성에 중요한 모티브로 간주되는 만큼 조사법의 형성 및 전개양상도 깊이 있게 천착해야 할 것이다. 시가문체의 변화, 조사법의 형성과정에 대한 규명은 개화기 시가의 특질을 파헤치는 1차적 의의를 갖는 것이나 나아가 한국 근대시 형성의 초기단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II. 개화기 국한문체의 갈등양상

개항 이후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구문물과 새로운 지식의 수용, 각종 제도의 개선과 사회단체들의 결성, 학교설립과 각종 서널리즘의 촉출 등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언어생활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회변동과 함께 진행된 개화서민 계층의 신분적 상승 역시 문자 인식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문체가 계층구조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던 만큼 신분계층의 새로운 체제형성은 곧 문체의 새로운 질서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¹⁾ 또한 근대화와 함께 야기된 국권상실의 위기상황은 자주위식, 주체위식으로 고양되어 우리 것에 대한 애착으로 표면화된다. 신채호가 『국한문의 경중』²⁾을 논하면서 민족주의 구현을 위해 국문을 쓰자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일본의 문체변혁 운동의 충격도 무시할 수 없는 외래적 요소였다. 『서유견문』뿐 아니라 『만세보』와 『철의루』의 표기방법 역시 일본식 문체의 영향이었다. 춘원과 육당의 신문장 건립운동도 일본 소설가인 山田美妙와 長谷川三葉亭의 문장 개혁 운동과 깊이 관련된 것이었다.³⁾

이와같이 외래충격에 의한 사회변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은 문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여기에서 국문체와 한문체

1)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1970, pp. 14~15.

2)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7일.

3) 조용만, 「우리나라 신문학 초창기에 있어 일본 및 서양의 영향」, <아세아연구> 46호, 1972, pp. 136~140.

의 문체갈등이 야기되었다. 개화기의 문체는 한문체, 국한문체, 국문체로 대별되지만 갈등양상이 심화된 것은 국한문체와 국문체였다. 한문체와 국문체의 갈등 아닌 국한문체와 국문체의 갈등은 그 만큼 한문체층의 세력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며 계층상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자나 근대식 학교 교육을 받은 일반시민, 부녀자 등 국문세력층이 그만큼 신흥계층으로 부상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이념지향, 가치체계가 그대로 문체에 투영되고 있음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면 문체변화는 곧 계층변화와 가치질서의 변화에까지 연계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국한문체—보수사립계층—척사사상의 흐름과 국문체—개화사민계층—개화사상의 이원적 맥락을 설정할 수 있다.

국한문체의 최초의 문헌상의 등장은 1886년 1월에 나온 <한성주보>였다. 1883년 봄에 유길준이 박영효의 권유로 신문창간을 준비하면서 국한문체로 하려했으나 신문이 발간되지 못하고 결국 <한성주보>에서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한성주보>는 한문, 국한문, 국문 문체를 동시에 사용하여 개화기 문체의 삼중구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동년 5월에 鄭秉夏의 『農政撮要』가 국한문으로 나온다. 1894년 갑오경장과 함께 공사문서에서도 국한문이 일반화되어 같은 해에 <官報>가 국한문으로 발행되었다. 1895년 국한문체의 집대성인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나왔다. 그러나 이 『서유견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개념어는 모두 한자로 쓰고 문법관계에 있는 것은 국문으로 표기하는 漢主國從體 문장이었다. 유길준은 국한문체 채택 이유중의 하나로 말을 쉽게 하여 문자를 略解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했는데 이는 문체변화가 곧 계층변화와 밀접히 관련됨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서유견문』의 지식보급을 위해서 좀더 대중적인 문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같은 해 고종의 教育立國詔書가 국한문으로 나온 것도 특이한 일이었다. 1895년 학부에서 편정한 소학 교과서 『국민소학독본』이 국한문으로 나온 후 이후의 모든 교과서가 국한문으로 된 것도 이러한 추세에 따른 결과였다. 이어서 1898년에 출간된 <황성신문>이 국한문체의 흐름을 따랐고 이후의 대부분의 신문이 국한문체를 채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한문체의 흐름에 대항하여 국문체의 대두도 만만치 않은 것

이었다. 국문체 파급의 진원은 기독교 수용이었던 것인데 신교이입 이전에 이미 천주교에 의해서 한글보급이 전개되고 있었다. 1788년 이승훈은 천주교 교리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신도들에게 읽게 했고,⁴⁾ 1880년 선교사들의 손으로 『韓佛字典』이 우리말로 편찬되었다.⁵⁾ 이 무렵의 한글 교리서로는 丁若鍾의 『主教要旨』, 丁若鎰의 『十誠命歌』, 李燦의 『天主恭敬歌』 등이 있었고 이후에도 20여종의 교리서들이 족출했다. 이러한 천주교 교리 국역운동과 아울러 신교에서도 국역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1882년에 나온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국문판 성서가 그 효시가 된다. 이어서 1883년 『사도행전』, 1884년 『마가복음』, 『마태복음』, 1885년에 『로마신서』, 『고린도 전후서』 등이 나왔고 마침내 1887년 『예수성교전서』라는 신약전서 전권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성서번역들은 신자들의 교리보급을 위하여 국문체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신자들의 대부분은 부녀자층이었고 일반서민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맹계층은 성서의 한글보급에 따라 한글을 배우게 되었고 한글을 통해 널리 학문을 배우고 개화의지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漢主國從體이던 <대한매일신보>에 교회관계 기사가 순국문으로 실린 사실과 <대한자강회월보>에 난 <가정잡지> 광고 “본잡지는 순국문으로 선명히 編述하여 婦人과 孺子의 閱讀함을 便易케 하온바……”라는 내용은 국문체와 기독교, 여성계층과의 관련을 잘 보여 준다.⁶⁾ 더구나 국문연구에 힘을 쏟은 개화기의 국어학자들이 기독교와 관계되는 인사들이었다는 사실도 기독교가 한글에 끼친 영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국어문법연구에 혁혁한 공을 남긴 주시경도 기독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한문전』의 최광옥, 『서유견문』의 유길준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국문체 『독립신문』을 낸 독립협회의 주동 인물들인 이상재, 윤치호, 이승만, 이동녕 등도 크리스찬이었던 것이다.⁷⁾ 그러나 이미 이전에 동학의 『경전인』 『용담유사』가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신흥종교 운동이 국문체 정착에 끼친 영향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4) 趙神權, 『한국문학과 기독교』, 연대출판부, 1983, p. 41.

5) 河聲來, 「한국 어문학에 끼친 천주교의 영향」, <국어국문학> 94호 p. 103.

6)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10일, <대한자강회월보> 5호, 1906년 7월.

7) 조신권, 앞의 책 pp. 67~68.

1894년 7월 12일 관리등용 시험과목에 국문을 첫번째로 넣는 개혁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동년 11월 21일 모든 법령은 국문으로 本을 삼고 漢文附譯 혹은 國漢文을 혼용한다는 칙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동년 12월 12일 갑오경장 선언문인 「洪範十四條」가 국문을 원본으로 하고 한문번역이 첨부된 상태로 선포되기에 이른다.

마침내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의 國文助筆로 알려진 주시경의 지도하에 <독립신문>이 순국문으로 간행되었다. 주시경의 영향은 큰 것이어서 띄어쓰기까지 실행됐던 것이다. 주시경은 <독립신문>의 총무겸 校補員으로서 신문편집에 직접 관여했고 신문사 안에 國文同式會를 만들어 국문표기법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⁸⁾ 이후 1897년 <조선크리스트인회보>, 1898년 <제국신문>, <경성신문>, <매일신문>, <그리스도신문>, 1906년 <경향신문>, 1907년 국문판 <대한매일신보>등이 순국문으로 간행되었다. 漢主國從體의 보수계 신문인 <대한매일신보>가 1906년에 국문판을 간행하게 된 것은 그만큼 국문제층의 사회적 진출이 증대됐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는 또한 저널리즘의 이러한 계층변화에 대한 인식의 소산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대한매일신보>는 국문판을 낸 이유를 “大韓의 文化를 開進코저하면 便利한 國文을 發達케 함에 在한 故로 特別히 國文報 一部分을 亦爲 發行하여 普通男女의 知識을 開廣코자 하오니……”¹⁰⁾라고 밝히고 있다. 국문판 발행은 보통남녀의 지식개발을 위한다는 것인데 실은 서민 개화층의 증대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6년 6월에 창간된 <가정잡지>가 순국문으로 된 것도 특히 여성계층의 사회적 진출을 반영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국문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증대하여 姜璋의 『擬定國文字母分解』(1896년), 李鳳雲의 『國文正理』(1897), 權靖善의 『正音宗訓』(1906), 주시경의 『國語典音學』(1908) 등이 나오고 마침내 1907년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를 개설하기에 이른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개화기의 문자생활은 국한문과 국문의 이중구조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두 문체의

8) 이기문, 앞의 책 p. 20.

9) <대한매일신보>는 국문판이 나온 후 4000여부의 구독자 증가율을 보였다. 1908년 5월 7일자 발행부수 참조.

10)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11일 특별광고.

갈등과 대립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개화기의 각종 학술지에 발표된 다음의 여러 논문을 보더라도 당대의 국한문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개화기 국한문론〉

- ① 「漢文字와 國文字의 損益如何」……申海永, 〈친목회보〉 2호(1896년 6월)
- ② 「국문론」……池錫永,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호(1896년 11월)
- ③ 「대한국문설」……池錫永, 〈대한자강회월보〉 11호(1907년 5월)
- ④ 「국문」……주시경, 〈가당잡지〉 3호(1906년 8월)
- ⑤ 「국문원류」……〈소년한반도〉 1호(1906년 11월)
- ⑥ 「대한문전」……〈소년한반도〉 3호~6호(1907년 1월~4월)
- ⑦ 「國文一定法意見書」……李能和 〈대한자강회월보〉 6호(1906년 12월)
- ⑧ 「국어와 국문의 필요」……주시경 〈서우〉 2호(1907년 1월)
- ⑨ 「國文便利及漢文幣害論」……姜銓 〈태극학보〉 6호(1907년 1월)
- ⑩ 「국어유지론」……朴大緒, 〈야외〉 1호(1907년 2월)
- ⑪ 「국문과 한문의 관계」……韓興教, 〈대한유학생회회보〉 1호(1907년 3월)
- ⑫ 「論漢文國文」……呂圭亨, 〈대동학회월보〉 1호(1908년 2월)
- ⑬ 「한문과 국문의 변별」……鄭喬, 〈대동학회월보〉 4호(1908년 5월)
- ⑭ 「論國文」……李鍾一, 〈대한협회회보〉 2호(1908년 5월)
- ⑮ 「국한문론」……李承喬, 〈서북학회월보〉 1호(1908년 6월)
- ⑯ 「국한문경중론」……〈호남학보〉 2호(1908년 7월)〈대한매일신보〉전제
- ⑰ 「文法은 宜統一」……신채호, 〈기호홍학회월보〉 5호(1908년 12월)
- ⑱ 「한나라말」……주시경, 〈보충친목회회보〉 1호(1910년 6월)

이와같이 국한문 사용에 대한 자기 다른 주장이 특히 1907년에서 19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들은 대체로 국문전용, 국한문혼용, 한문전용 등으로 三分할 수 있는데 신해영의 「한문자와 국문자의 손익여하」, 지석영의 「국문론」등이 국문전용의 주장이고, 한홍교의 「논한문국문」은 국한문혼용, 여규형의 「論漢文國文」은 한문전용의 대표적 주장들이다. 六堂은 신문장 건설운동을 전개한 장본인이었고 실제 문장과 시가창작에서 국문체의 전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한문에 관한 논의가 개진되지 않았음이 특이하다. 육당의 국문연구에

관한 것으로는 1916년에 나온 『時文讀本』이 있는데 이는 언문일치의 문장을 실제 예문을 들어 설명한 안내서였다. 신문에서도 이와 같은 논문들이 많이 산견되는데 신채호의 글로 추정되는 <대한매일신보>의 「국한문의 경중」(1908년 3월 17일자)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글은 특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문체 문제를 거론하고 근대적 민족주의의 고양을 위해서 국문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그의 주체사관에 의한 문체관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황성신문>에 발표된 「국한문답」¹¹⁾이란 글은 한문과 국문의 기능을 특히 문학적인 것에 관련시켜 논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역사, 사회, 사상적인 관점에서 국한문론을 편 것이 상기 논문들의 공통점임에 비하여 이 글은 문학적인 차원에서 문체에 접근하고 있다.

〈國漢文問答〉

△東洋世界에서는 漢文이 第一이며 不得不 崇尙하여야만 되겠는데 國文이 第一이라고 漢文을 輕視하는사람 알수업더고(漢文生)

△왜 漢文이 窻탄말인가 十七歲부터 六七十歲까지 해도 卒業하였다는 사람 못보았네 國文은 一朝만 精神들어 工夫하면 限生前 金쪽가치 쓰는걸(國文生)

△자네가 漢文의 滋味와 韻致를 모루네 李白詩에 長安一片月 萬戶烏衣裳 一句를 외여보면 無窮한 言外之意가 잇서니 國文으로야 될 수 잇나(漢文生)

△내말듯게 달박고 서리친 밤에 울고가는 저기력아 이노래에 漢文이라고는 一字가 업스나 누가듯고 좃타 얼시구 아니할 사람잇나

이 문답을 보면 漢詩와 國文詩歌의 정서처리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기에 우리글이 얼마든지 기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개진되고 있다. 비록 단편적인 글이지만 시가창작에 있어 표현매체의 문제에 대한 요체를 얻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문답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국한문의 문체갈등은 개화기의 사회현상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학창작에도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詩歌의 표현매체가 언어이고 또한 산문과 다르게 시는 언어를 수단 아

11) <황성신문> 2564호, 1907년 7월 13일.

닌 사물 그 자체로 대한다는 시언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표현매체의 변이는 시가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신소설의 문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시가문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가의 문체변이 과정을 살펴보고 당대의 문체, 언어관이 시가창작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Ⅲ. 詩歌文體의 변이과정

개화기에 통용된 한문, 국한문, 국문체의 표기는 개화기 시가장르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한문체는 漢詩에, 국한문과 국문은 가사, 창가, 시조, 신시, 자유시 등에 뒤섞여 나타난다. 한시를 제외한다면 국한문체와 국문체로 대별되는데 국한문의 경우 그 사용 정도에 따라 다시 漢主國從體와 國主漢從體로 나눌 수 있다. 또 한주국중체는 半漢半國體로 더 세분할 수 있다. 李能和는 이러한 문체의 갈래를 「國文一定法意見書」에서 논하고 있는데 그는 “① 唯人最貴(순한문) ②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순국문) ③ 唯人이 最貴하니(國漢交用法) ④ 오직사람(唯人)이 가장귀(最貴)하니” 등의 4가지 문체유형의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¹²⁾ 또 그는 이 문체유형을 계층과 관련시켜 순한문체는 雅者(식자)층, 순국문체는 俗者(일반)층의 문체이고 國漢交用法은 俗者층이 알 수 없는 문체이고 ④번 즉 漢文側附書諺文은 雅者和 俗者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체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개화기 문체유형들이 시가창작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직접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漢主國從體의 전개양상

이 한주국중체는 주로 보수계 신문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등에서 나타난다. 이 현상이 뚜렷한 몇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千歲千歲東宮殿下 高等學校歷任하사
 堠山鶴駕駐必하고 遊覽式을行하시니

12) <대한자강회월보> 6호, 1906년 7월 13일.

睿總仁聖第一이오 學事勳獎第二로다

周世子의人學홍을 古禮에聞知러니

漢太子의辟雍幸行 今日에觀見이라

前星瑞彩文星이오 少海波瀾學海로다

(「東宮殿下歡迎歌」, <황성신문> 1907년 9월 16일)

同胞知識發達초로 萬歲新報出刊하니

內情外事千萬語를 霧中昏花갓고보세

腐敗思想다브리고 이新聞을愛讀해야

桃源舊夢驚罷하고 新世界로前進하시

(「萬歲報 祝詞」, <만세보> 1906년 6월 28일)

嚴霜이一下하니 肅殺之氣凜烈하다

▲博浪斜月孤鷹影은 秦始皇의劫夢이오

蘆水秋風落本聲은 隋煬帝의驚魂이라

▲엇지타, 恃強凌弱跳梁兒는, 不識天意

(「霜令」, <대한민보> 1909년 10월 10일)

이상 한문편향이 강했던 신문에서 대표적인 몇 예를 들어 보았다. 예시에서 보다시피 국문은 어미나 조사, 감탄사등의 보조에 그치고 있을 뿐 문장형식 자체가 한문장으로 되어 있다. 행구분이나 음수율면에서만 이 가사나 시조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특히 <대한매일신보>의 사회 등 가사는 웬만한 한문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다. 창작에 사용된 문자자체가 한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장 체계 자체가 한문장 형식을 취하고 있고 어려운 고사성어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문편향의 시가창작은 보수계 신문들의 이념지향 즉 척사국권의식을 문자자체의 보수적 속성에 의거하여 표출코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문체가 이념이나 사상의 용기로, 국문체가 정서나 감정의 전달매체로 인식된다는 하나의 예증이기도 하다. 한자가 갖는 권위성과 보수성을 빌어 척사국권의식을 담고자 했던 것이다. 김윤식 교수는 철학적 경제적 사상논리를 전개함에는 순한문체가 가장 합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한문체는 중후한 격조를 동반케 하여 故事成語의 文化的

압력을 共有하는 것으로 하여 사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하여 문한문체가 사학과 저널리즘, 경제학의 결합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¹³⁾ 이에 비해 국문체는 정서표출에 관련된다. 이광수의 지적인 “고유명사나 한문에서 온 명사, 형용사, 동사 등 국문으로 쓰지 못할 것만 오직 한문으로 쓰고 그밖은 모두 국문으로 하자”¹⁴⁾는 주장은 한문이 사상을 맡고 정서적 부분은 국문으로 하자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¹⁵⁾ 이광수의 국문사용론의 견해를 정서쪽으로 해석한 견해가 맞다면 위와 같은 문체는 아직 문학적인 것으로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국문형태로식 한주국중 문체는 〈독립신문〉, 〈제국신문〉 〈경향신문〉, 〈신한민보〉 등의 순국문 시가와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한문체 편향은 신문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나 잡지에서도 나타난다.

蓋自強之目的兮 歎獨力之難成兮
扶我韓之強이로다 謀團結之強이로다
知衆擊之易與兮 二千萬之一心兮
且赴會之強이로다 向無敵之強이로다

(「自強會報歌」, 〈대한자강회월보〉 2호, 1906년 8월 7)

太極兮太極兮여, 一片靑邱太極兮로다
太極兮無極兮여, 無極이有極이로다
美年同胞僉學員이, 太極旗下團體로다
一心團體熱心事는, 研究精神學學이라

(「贊祝歌」, 〈태극학보〉 7호, 1907년 2월)

이와같이 잡지에서도 한문체 편향이 나타나나 신문에 비해서 다소 순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잡지에서도 국내 학회지보다는 유학생 중심의 해외 학회지가 더욱 순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대한학회월보〉의 시가는 형태의 변형에서 뿐아니라 순국문 시가가 많이 게재되어 국문체 이행의 과도기적 매체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13)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4, p. 88.

14) 이광수, 「今日我韓國文에 對하여」, 〈황성신문〉, 1910년 7월 24일~27일.

15) 김윤식, 앞의 책, p. 90.

2. 半漢半國體의 전개양상

예시한 바와 같은 국문현토식의 한주국중체가 국한문체의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음 경우와 같이 한자와 국문이 반반씩 섞인 문체가 국한문체의 보편적 형태였다. 이는 漢主國從에서 半漢半國體로 가는 제 2 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대부분 이런 형태의 것이라 신문과 잡지에서 한 예만 들기로 하겠다.

우리人生此世界에 當然홀일무엇인고
 내 혼몸을도라보랴 온全國을도라보랴
 내 혼몸도重치마는 二千萬이더만코나
 이한몸을브리고서 二千萬을사고보면
 (『警醒歌』,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4일)

榮華로다榮華로다, 이내죽엄榮華로다,
 흑갓치써근말도, 죽은후엔金言일세,
 士킬너戰爭보덤, 志士죽엄有力호외,
 志士열만잘죽으면, 일혼國權되찾는다.
 (『生辱死榮歌』, <대한자강회월보> 13호 1908년 7월)

이 두 편과 같이 한자어로 쓸수 있는 개념어는 다 한자로 쓰되 비교적 우리말 사용이 많아짐으로써 한자와 국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가 개화기 시가의 보편적인 것으로 六堂, 春園도 이러한 문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였고, 1910년 이후에는 일제의 국한문 정책에 힘입어 이러한 문체가 고정화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이 半漢半國體의 변형태로서 한자어로 쓸 수 있는 개념어임에도 불구하고 국문으로 표기하는 시가들이 나타난다. 즉 일 예를 들면 學徒를 ‘學도’로 쓴다든지 ‘학도’로 표기하는 경우다. 서서히 국문체가 한 문체를 잠식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특히 전자는 분명 정상적인 문체가 아니다. 한자로 ‘學徒’로 쓰든지 아니면 국문으로 ‘학도’로 표기하지 않고 한 글자는 漢字, 한 글자는 국문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즉 문체 자체의 갈등이 아니라 단어 자체내에서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어 흥미롭다. 이 파행양식은 한 두 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형화할 정도로 상

당수 나타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쓸디업는리욕지心, 어이하여솔장될나
愚昧하고可憐한소 흥괴존망어이하어
(「歎鳥啄尸歌」, 〈大每〉, 1905년 12월 22일,)
- ② 대한江山光榮이오 五洲世界誦聲이라
(「哀吊歌」, 〈大每〉, 1906년 6월 5일,)
- ③ 학徒들이학徒들이 盡齊一心瞻仰하야
(「慕忠校歌」, 〈大每〉, 1907년 1월 16일,)
- ④ 一千三百萬圓國債, 대한國民分明토다
대한二千萬人衆에, 國동사는安衡식이
(「國債報상歌」, 〈大每〉, 1907년 4월 14일,)
- ⑤ 호호양양玄海우에, 이팔물에魚龍이活약이라
무삼精神슈養하고 락평洋너른물도
(「別芙蓉峰」, 〈대한홍학보〉 5호,)
- ⑥ 東으로金강峰은 산식이더욱춧타아
(「太白山歌」, 〈대한홍학보〉 10호,)
- ⑦ 教育하는은해집히심과하니
한학교에동학하는親舊
(「學生歌」, 〈태극학보〉 26호,)
- ⑧ 萬里타향에외로운객의마음잡절이나슬프도다
(「國風四首」, 〈대한유학생회학보〉 1호,)

다소 장황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 현상이 보편적인 것임을 예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④의 경우 ‘安衡植’을 ‘安衡식’이라고 표기하여 고유명사까지도 파행양상을 보여 주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분명 국문체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혼란상으로 보여진다.

半漢半國體에서 國主從體로 옮겨지기 전 또 하나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한자에 국문현토를 다는 일이었다. 한자에 국문을 병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때로는 음독이 아니라 혼독까지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배려는 결국 독서대중의 계층변화를 인식한 언어장치로 보여지는데 〈만세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천디추식 충의경신
 天地秋色가득하니 忠義精神시롭도다

학도단체 자유운동
 우리學徒團體되야 自由運動하여보세

심존경쟁 일본 사양
 生存競爭此世界에 一步인덜辭讓할가

물품수취 물습경유민첩
 物品收取받비하니 栗拾競走敏捷하다

(「운동가」, <만세보> 1906년 10월 16일)

예시와 같이 한자에 국문을 병기하고 있다. 한자에 국문을 병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秋風을 ‘추풍’으로 하는 방법, 家內를 ‘아내’ 하는 방법, 一婦人을 ‘한부인’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¹⁶⁾ 첫번째 유형은 1893년 전봉준이 동학혁명을 모의할 때 사방에 돌린 격문에서 볼 수 있고,¹⁷⁾ 세번째 유형은 1908년 유길준의 『勞動夜學讀本』에 선 보인 바 있다.¹⁸⁾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식의 혼독표기는 일본어 표기법과 일치하고 그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⁹⁾ <만세보>는 창간호(1906년 6월 17일)부터 202호(1907년 3월 9일)까지 이러한 표기 방법을 채택했는데 詩歌의 표기도 이러한 방침에 의한 것이다. <만세보>는 吳世昌이 일본서 돌아와 孫秉熙의 지원으로 간행됐던 만큼 일본문체로 기울어졌던 것이다.²⁰⁾ 「철의누」의 문체도 이와같이 혼독양식이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시가문체는 이러한 여러가지의 파행양상을 거치면서 國主漢從體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3. 國主漢從體의 전개양상

국주한종체는 국문이 중심이 되고 약간의 한자가 섞여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명이나 인명 때로는 개념어가 한자로 나타난다. 이 문체에

16) 조연현, 『한국신문학교』, 文化堂, p. 90.

우 여 격문 수방
 17) “右와 如히 檄文를 四方에 飛傳하니

사람 하날 싸
 18) “人은 天과 地사이애”

1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부, p. 228.

20) 김윤식, 앞의 책 p. 87.

이르면 국문이 한문을 압도하여 국문주인이 한문하인을 거느리는 형식을 갖추게 된다. 계층으로 대입시킨다면 국문체 지향은 곧 개화서민계층 또는 부녀자계층의 사회적 표면화를 의미한다.

畫出망량 허허얼사우습도다. 모모티신출입시에 보호는무슨일고 주출망량그
안인가 春雉自鳴회되물너일진회는 보국안민홍자한되 비들사람업고보면 춘치
조명그안인가 (『병문친고육두풍월』, <대매>, 1906년 2월 3일)

나는가오/芙蓉峰높고큰산/등에던것그것이오 / 玄海灘실개천은 / 워넘난것
그것이라. / 나는가오/우에노사구라는/써나가난것이오 / 洛陽城도리화는/
만나려난것이라. / 나는가오/산더나바다넘어 / 맛날언약끼터두고/새벗넘마
더려고/듀저안코황개치며 —. (『나는가오』, <대한학회월보> 3호 1908년 4월)

왔도다왔도다 봄이왔도다 지나갓든봄철이 다시왔도다
미습고물맑은 우리나라에 지나갓든봄철이 다시왔도다
아니와뒷기에 어름풀니고 먼산갓가운산 눈이녹는다
풀꼭이꼭이마다 속납나오고 나무가지가지마다 잎이솟난다
어허우리農夫들아 精神차려라 아릿들웃들에 셔느겨간다.

(『農夫歌』, <서북학회월보>, 15호 1909년 8월)

예시와 같이 극히 필요한 개념어나 지명 등이 한자어로 쓰이고 대부분 국문으로 표기되고 있다. 「나는가오」에서는 지명 이외에는 일체 한자가 없으며 「농부가」에서는 전편에 ‘農夫’, ‘精神’, ‘聖上’의 세 단어만 한자로 나오고 있다. 추상적이고 난해한 관념어, 고사성어 등의 한자는 배제되어 있음을 본다. 「병문친고육두풍월」의 국주한중체는 지재매체인 <대한매일신보>의 성격을 볼 때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머지 두편은 詩 내용이 사회적이거나 계몽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서정의 징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즉 한문체에서 국문체로 이행하면서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사회적 이념들이 거세되고 서정 및 서경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순한문체가 사상과 이념을, 국문체가 정서적 내용을 담는다는 앞에서의 지적이 이 작품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한편 국한문체에서 국문현토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문에 한자현토를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다음 시가가 그 예이다.

南大洋
웃더 하면 남대양 바다물위에

珊瑚枝
붉으러게 피어진 산호가지와

崑崙山
웃더 하면 곤륜산 도악돌틈에

(「그의 손」, <대한학회월보> 3호, 1908년 4월)

神 百姓 神 人民
신은입업서 / 백성이대신 / 신은뜻업서 / 백성이먼저

世界 金鐵 宇宙
세상은크다 / 금철을니고 / 텃디에가득 // 오오거룩한

(「백성의 노래」, <대학학회월보> 3호)

한자병기 방식은 물론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터인데 예시에서는 그런 경우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특별히 개념혼란을 가져올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상기 예시에 나타나는 표기방식은 한자로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한자를 병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백성은 ‘人民’으로, 천지를 ‘宇宙’로, 세상을 ‘世界’로 병기하고 있어 한글혼독의 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흥미롭다.

<대한학회월보>는 육당의 초창기 詩作의 산실로서 7편의 육당시가를 발표하고 있다. 1, 2호에는 모두 순국문으로 표기했으나 3호에서 한자를 병기한 것은 갑작스런 순국문체로의 이행에 대한 배려로 생각된다. 육당은 이후 7개월후 <소년>에 와서는 국주한종체로 바뀌고 순국문 시가창작에서 손을 떼게 된다. 따라서 이 표기방식은 육당의 순국문체 의식에서 국한문체로 다시 역행하는 과정의 소산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한자병기 방식은 1913년 <신한민보>에도 보이고²¹⁾ 동년의 <매일신보>에서는 한자병기가 아니라 한자를 괄호로 묶는 방식이 등장하기도 하였다.²²⁾

4. 순국문체의 전개양상

순국문체 시가는 이미 <독립신문>, <제국신문>, <경향신문>, <신한민보>, <대한매일신보>, <국문판> 등이 있어 상당수의 작품이 발표되고 있

21) 「新解風雅」, <신한민보>, 1913년 6월 30일.

22) 「有情無情歲月歎」(<매일신보> 1913. 1. 1), 「우리매일신보」, (<매일신보> 1913. 1. 17), 「거르른동산」(<청춘> 15호, 1918년 9월).

다. 그러나 신문 字體를 국한문으로 하는 매체에서의 국문체 시가창작은 이러한 국문신문의 시가창작과는 다른 각도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작품이 일괄적으로 순국문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전자라면 국한문체의 갈등을 통해 국문체가 표면화됨으로써 국문체 시가의 형성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후자의 경우일 것이다.

순국문체 시가를 검토하는데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창작계층과 관련하여 여성계층의 출현을 알아 보는 일이고 순국문이라 하더라도 한자를 그냥 우리말로 표기하는 경우와 순수국어로서의 문체언어를 검토하는 문제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곧 文語體와 口語體의 문제 곧 言文一致의 양상을 따지는 일이 된다. 문체는 순국문체이지만 한자를 다만 국문으로 옮겨 문어체로서 딱딱한 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 순국문체의 시가는 1910년 이전 국한문체를 채택한 신문, 잡지에서 15편이 발견된다. ①「혈죽가」②「布哇韓人教會의 時事談說」③「閔忠正公血竹歌」④「진명부인회 개회식가」⑤「단연동맹가」⑥「애국가」⑦「희망가」⑧「국풍 7수」⑨「病中」⑩「모르베나는」⑪「다유의신에게」⑫「막은물」⑬「생각한대로」⑭「아래돌노래」⑮「항요」등이 그것이다. ①②③은 한문편향성이 강한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점이 특이한데 유독 이 세 편이 순국문이었음은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혈죽가」는 작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다. 순국문으로 실린 것이 몇 편 안되는 상황에서 이 작품의 작자가 大丘女史라는 여성이었다는 것은 곧 국문체 시가창작이 여성계층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문체 시가창작은 이와같이 여성계층의 참여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황성신문>에 실린 「진명부인회개회식가」에서도 확인된다. 이 작품은 <황성신문>에 게재된 유일한 국문체 가사였는데 작자가 養門의숙의 여학도였던 것이다. ②의 경우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교인이 지은 작품인데 기독교 신자계층의 시가창작이 국문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예증으로 보인다. <독립신문> 소재의 순국문시가들이 상당수 기독교 신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경향신문>의 국문시가에도 가톨릭 신자들의 참여가 있는 것이다.²³⁾ 이와같이 신문의 경우는 일정한 창작계층,

23) 「문명유람가」(김시필노, 1909. 9. 24), 「경세가」(김요섭, 1909. 12. 3).

즉 여성층이나 기독교신자층에 국한해서 순국문체 시가가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 만큼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은 문체면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문어체와 구어체의 갈등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디훈광무십일년에 성명일원호시더라
 우리황상성덕이여 중흥공업장하도다
 틱극괴를놓히다니 동양세계밋치나네
 각소회의소업이오 각학교의교육이라
 국민지식발달하니 남녀학문일반이라
 진명회여진명회여 문명진보진명회라

(「개회식가」, <황성신문> 1907년 6월 17일)

병이나서 공부못히, 일이잇서 공부못히
 이핑게저핑게다써이고나면 공부홀놀전혀업네
 아모써가도네공부논너홀것이니, 네아라차려라

(「病中」, <대한유학생회월보> 3호, 1907년 5월)

물이한번붓으면 텃디안난것업고
 불이한번불으면 타디안난것업네
 물과불의큰힘을 눈이잇서보거던
 아난것과분수가 업다하디마려라

(「생각한대로대」, <대한학회월보> 2호, 1908년 3월)

맨 앞의 「개회식가」와 나머지 두 편을 대비해 볼 때 그 차이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개회식가」는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었을 뿐 그대로 국한문체 그것도 한주국종체의 문장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두 편은 우리말을 일상화법에 접근시키고 있다. 앞의 순국문체 시가에서 ①②③④⑤등은 文語體 계열에 속하고 나머지는 口語體 쪽에 드는 시가들이다. 이와같이 구어체 국문 시가들이 10여 편이나 발표되고 있음을 볼 때 신문학에 있어서 신문장 건설운동이나 언문일치 운동은 <소년>지의 시가에서 뿐 아니라 기타 일반 잡지에서도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소년>지 시가의 언문일치 현상은 두드러진 것이긴 해도 순국문체는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오히려 여타 학회지들이 순국문체로서

구어체 문장을 개척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六堂은 〈소년〉지 이전 〈대한학회월보〉 등을 중심으로 형태면에서 뿐 아니라 문체면에서도 근대시를 위한 조탁을 한 셈이고 이런 결과로 〈소년〉, 〈청춘〉 등의 언문일치 문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다소 장황하게 개화기 시가에 나타나는 국한문체의 갈등양상과 구어체의 정착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시가에 나타나는 이러한 갈등과 변이는 곧 창작대체의 성격이나 창작계층의 성분에 따라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는 곧 개화기라는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근대 초기시가에 나타난 문체상의 변화는 당대의 사회상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신문〉에서 〈소년〉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치면서 마침내 순국문의 구어체 시가가 탄생할 수 있었음은 문학저널리즘을 말은 저널리스트 계층의 노력과 일반 창작계층의 시험과 모색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실로 우리 근대시의 토대가 되는 문체의 변화는 사상의 수용이나 정서의 표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 중언하지만 시의 표현매체는 언어이고 그 언어를 수단아닌 사물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이다. 즉 시장르는 다른 장르와 다르게 표현매체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는 속성을 강하게 지닌다. 한문체에서 다루기 힘든 서정과 서경의 수용이 국문체 시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위의 분석에서 드러난 바인데 이 역시 시에서의 언어매체가 갖는 직접성의 한 예증으로 볼 수 있다. 이 서정성의 확보는 개화기적 상황에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순수문학으로서의 근대시 발전을 위해서는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문체상의 변모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Ⅳ. 조사법의 형성과정

1. 구두법의 형성과정

한편 이러한 국문 구어체 시가의 정착과 함께 措辭法(phraseology)의 새로운 변화도 포착된다. 넓게는 詩行의 변화나 聯의 구성방식도 포함

되었으나 본고에서는 개화기에 새로 등장하는 구두점 사용, 띄어쓰기 그리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내재율의 징후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변화들은 문체의 변화와 함께 근대시로 지향하기 위한 중요한 형태적 변화임에 틀림없다.

먼저 구두점(punctuation)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다. 한국에서 구두점 사용의 시발은 1896년 2월 <친목회회보>와 『新訂尋常小學』 그리고 1897년 1월 이봉운의 『국문정리』로 알려져 있다. 성서번역 등 한글서가 이미 가톨릭 계통과 신교계통에서 나온 바 있으나 諺解式表記法에 의거해 왔기 때문에 구두점 사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구두점의 사용은 서구식 표기를 일본에서 수용했고 그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재수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²⁴⁾ 특히 최초의 국어 교과서 중의 하나인 『신정심상소학』을 일본 소학교교과서인 『심상소학목본』을 日人 편수자가 그대로 韓譯 편수하는 과정에서 이입됐던 것이다.²⁵⁾ <친목회회보> 역시 최초의 일본 유학생 잡지였던 만큼 일본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구두점 사용 현황을 보면 일본에서는 山田美妙, 二葉亭四迷 등의 작가가 그들 작품에다 ○(句點)과 , (讀點)을 사용했고 1906년 문부성에서 ‘○, ・, ㄴ, ㄷ’ 다섯 종의 부호용법을 규정 공포하였다. 우리의 경우 <친목회회보>에서는, (讀點) 하나로 통일되었고 『신정심상소학』과 『국문정리』에서는 ○(句點)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예들을 살펴 보면 삼입부호와 중지부의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신정심상소학』과 <친목회회보>는 띄어쓰기 대신 ○표를 사용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수용된 구두점이 실제 시가창작에 나타난 것은 언제일까. 시가창작에서의 수용과정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신문, 잡지를 통털어 詩歌에 구두점이 처음 나온 것은 1907년 2월 <태극학보> 7호에 실린 「찬축가」와 「除夕漫筆」이었다. 물론 한시에는 일찍이 구두점이 사용되어 <태극학보> 1호(1906년 8월)에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暑退涼生氣存透， 蟬聽綠亂綠陰邊，
 隱映長吟朝露葉， 凌涼晚帶夕陽煙，

24) 구두점에 관한 논저는 金秉喆 『한국근대 서양문학이입사』(울유문화사, 1980) 중 제 5권 「구두법의 이입」 참조.

25) 김병철, 같은 책 pp. 87~93.

懷友精庭下樹，脫仙消息洞中天，

(「聞蟬」)

이 한시에는 구두점 뿐만 아니라 방점으로 〃, 〇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호에 실린 가사 「충고가」에는 구두점이 일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7호에 와서 두 편의 가사에 구두점을 사용한다.

太極兮太極兮여，一片靑邱太極兮로다

太極兮無極兮여，無極이有極이로다

(「찬축가」)

故國山川서는後에，荏苒光陰如流흐여

大韓光武十一年에，於焉間에도라왔네

(「제석만필」)

예에서 보다시피 구두점은 8음절 1구를 표시하기 위하여 行의 중간 부분에 삽입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시가에서의 구두점 사용이었다. 신문에서는 다소 늦어져 1907년 7월 27일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시조 「철죽가 십절」에서 처음 나타난다. 특히 신문의 경우는 시조장르에 국한해서 나타나는데 <대한매일신보>와 <대한민보>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개화기 시조의 효시는 1906년 7월 21일의 大丘女史의 「血竹歌」였으나 순국문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거나 구두점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보>의 첫 시조는 79호(1909년 9월 15일)의 「大團結」인데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土壤이 泰山되고，細流모혀 河海로다

▲二千萬衆團結하면，獨立富強非難事니

▲願컨데，우리同胞님들，合心團力

이와같이 시조에서의 구두점 사용은 詩句를 분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조동일 교수는 시조에서의 쉼표 사용은 율격의 짜임새를 명확하게 인식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²⁶⁾ <대한민보>의 시조는

breath group 은 , 표로, 分章구분은 ▲표를 사용하고 있다. 시조에 대한 句, 行 의식이 뚜렷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의 경우는 시조 외에는 구두점이나 기타 부호가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가끔 예외적인 경우가 산견되는데 「경세목탁」(〈제국신문〉, 1907년 8월 6일)에서 ‘……’표 사용, 「학도가」(〈대한매일신보〉 국문판, 1908년 1월 9일)에서 ‘—’표 사용, 「조일진」(〈대한매일신보〉 국문판, 1909년 3월 18일)에서 구두점 ‘,’이 句의 구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잡지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구두점에 대한 문장인식은 신문보다 잡지에서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구두점 사용이 빈번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어서뱃비소틀모라,

上平下平, 뱃을갈고,

남과갓치, 도라오세

어서뱃비짐을싸서,

松波長原, 장을보고

黃昏前에, 도라오세

어서뱃비道를타거,

孔, 釋, 耶聖, 崇拜하고,

仁, 愛, 慈悲, 도라오세,

(「어서뱃비도라오세」, 〈대한학회월보〉 2호, 1908년 3월)

B) 허리틀어미여서, 죽은듯, 조논듯, 우부리고눈樣可憐토다. 갈나져서, 腦漿은, 호늑々々, 발톱에, 튀여디고, 鮮血은, 淋漓히, 짝에, 썩여지는도다.

(「육중호걸」, 〈대한홍학보〉 9호, 1910년 1월)

C) 산아산아—티백山아—. 산닐흙도도컨니와 산세더욱쪼타아.

滄海力土낮은곳이 이곳이안인가.

(「태백산가」, 〈대한홍학보〉 10호, 1910년 2월)

예시와 같이 여러 잡지에서 구두점 기타 문장부호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년〉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이러한 구두점 및 문장부

호의 사용이 뛰어난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소년>에서는 ?! — 『』 「 」 ◎ 등 각종의 문장부호들이 동원되고 있다. 김용직 교수는 구두점이 詩作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 근대시로 가는 중요한 변모로 평가하고 있다. 즉 구두점은 의미의 단락과 단락에 쓰이면서 그 한계를 명시해 주고 다음 단락과의 연결과 호흡문제를 조정해 주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김용직 교수는 구두점의 사용으로 해서 신시가 창가, 가사들에 비해 발전된 장르가 됐음을 설명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예시에서 보듯이 구두점은 신시에서 뿐 아니라 가사, 창가, 시조 등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다. 그 기능의 차이점은 다소 있었을지 몰라도 구두점 사용이 신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아뭏든 시조, 가사 등의 전통장르에서의 구두점 사용이 신시, 자유시등에 비약하여 근대시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개화기시가는 구두점의 사용으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2. 띄어쓰기 및 내재율의 전개양상

띄어쓰기 문제 역시 구두법 못지 않게 중요한 현상으로 보인다. 의미 단락이나 律讀호흡의 기능에서 구두점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詩行上의 변화를 가져와 시의 형태적 측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띄어쓰기가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문, 국한문체보다 국문체에서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독립신문> 창간호에서 띄어쓰기를 시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문을 이러케 세여 쓴 즉 아모라도 이 신문을 보기가 쉽고 신문축에 잇난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함이라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진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말마디를 세이지 아니 하고 그저 출출 내려 쓰는 싸됨에 글자가 우회되터는지 아득 보터는지 몰나서 몇번 일거 본후에야 글자가 어디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 편지 혼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디 보고……”

즉 띄어쓰기는 문맥흐름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

27)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p. 103.

는 것이다. 순국문체를 택한 것도 파격적인 것인데 띄어쓰기까지 시행한 것은 <독립신문>의 근대정신의 발로로 보여진다. 물론 이 배경에는 서재필의 제자로서 그의 신임을 받고 신문 편집실무를 맡고 있던 주시경의 국문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문의 모든 기사는 띄어쓰기로 되어 있으나 詩歌들은 행연구분이 된 정도이고 8음절 연속체로 되어 있다. 행연구별로 문맥전달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막상 띄어쓰기는 국문판 신문이던 <제국신문>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1902월 11월 22일(1357호)의 「時事短說」이 그 효시이다.

▲관찰균슈 어스시찰 형공훈씨 엇더튼가
 무피바람 텡텡하고 호령서리 쏘쏘하니
 빅성돈이 너것일세 공전에는 범치말게

그러나 <제국신문> 이후로 <경향신문>, <대한매일신보>(국문판), <신한민보> 등의 국문판 신문이 나왔으나 일반기사는 띄어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詩歌는 그대로 이어쓰기 하고 있다. <독립신문> 시가와 같이 행연구분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제국신문>은 고정란 양식으로 굳혀진 「時事寸言」(1906년 3월 6일)란의 가사에서 띄어쓰기를 완벽히 실현하고 있으며 독자투고의 시가도 띄어쓰기 된 것이 많았다. 그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협실의 스총죽은 세계상에 던과하네
 일심일스는 사뭇마다 당호것만
 자고로 위국진명은 류방빅세
 (「여학도 애국가」, <제국신문>, 1906년 8월 13일)

그런데 <제국신문>의 이러한 선구적 조치는 이 신문이 중류 이하의 대중 및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었다는 사실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국신문>은 암신문, <황성신문>은 숫신문이라는 당대의 별칭을 보더라도 <제국신문>이 갖는 여성계층과의 연계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띄어쓰기의措辭개혁은 개화기의 여성계층의 대두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예시한 작품도 여성층의 시가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문판 <대한매일신보>에도 띄어쓰기가 실현된 몇 편의 작품이 산견된다. 띄어쓰기 시가가 거의 없었던 <대한매일신보>로서는 예외적인 것인데 「혈죽가열슈」, 「문일지십가」 등이 그 예이다.

일국을 혼동하니 너각대신의 권리로다
 나라권리 다뵈아셔 조귀디위 비득호니
 독전기리 도홀시고

(「문일지십가」, <大每>, 1907년 12월 18일)

이와같이 신문매체에서 띄어쓰기는 거의 <제국신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게재량이 많았던 점을 볼 때 영향력은 컸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황성신문>에서도 회귀하게 띄어쓰기한 시가가 한편 보이는데 이는 한문투의 보수적 신문으로서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위기념경축가」가 그것인데 이는 황제즉위 기념 1주기를 맞아 노래한 창가로서 악보에 맞추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一, 二, 三 연 각행의 띄어쓰기가 완전히 일치되어 한 악보에 맞추어 몇 연의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다.

- | | |
|--------------|--------------|
| 一. 아침날이 고향는데 | 二. 가을날이 개였는데 |
| 天地가 새로어라 | 바람이 서늘호사 |
| 神聖호손 사랑호다 | 질겨울손 도라왔다 |
| 어화 이날이어 | 어화 이날이어 |
| 우리임금 御極호신 이날 | 우리國民 紀念호는 이날 |
| 스므 일헛날 八月일세 | 스무 일헛날 八月일세 |
| 隆熙二年 | 隆熙二年 |

(1908년 8월 16일)

예시와 같이 한연 내의 띄어쓰기는 물론 二, 三연의 각 대응행의 잣수와 띄어쓰기가 일치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띄어쓰기 현상은 악보에 맞추기 위한 창가기법과도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시를 보면 음수율도 자유로워 가창을 배제한다면 신시형식에 가까워진다. 신시장

르가 이와같은 창가기법에서 영향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잡지에서는 <태극학보>, <서북학회월보>에서 산견되다가 <소년>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먼저 <태극학보>와 <서북학회월보>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저진너 한반도에 단군혈족은 어디로 가잔말리나

빼놈의중자가 드러를 온다

(「歌調」, <태극학보> 24 호, 1908 년 6 월)

B) 석탄 빈탄 타는디는 연기도 풀석 나지마는

국가사를 싱자하고 주야로 우는 이너가슴 타는디는

연기도 김도 아니난다

(「巷謠」, <서북학회월보> 17 호, 1090 년 11 월)

두 편 다 민요장르로 울조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울조의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띄어쓰기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4·4 조 가사와 7·5 조 창가는 정형틀이 지배되기 때문에 띄어쓰기 보다는 分行分聯에 의존하여 시형식을 유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띄어쓰기는 곧 자유율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六堂은 <소년>에서 가사의 경우는 4 음보를 한 단위로 나누어 分句하고 창가는 3—4—5, 또는 7—5 등으로 分句하고 있다. 8 음절을 한 단위로 해서 띄어쓰기 했던 것보다는 세밀해진 셈이지만 시형식에 얽매어서 일률적으로 띄어쓰기 했던 것이다.

A) 黑驢子도 사람이라 썩썩가다 노리한다

생대갓흔 太生員은 큰북티며 압풀서고 (「흑구자의 노리」 <소년> 1 호,)

B) 藪한버들 말은풀 맑은시내에

배가불은 혼듯사라 가난더배야 (「가을뜻」 <소년> 1 호,)

이와같이 가사, 창가의 4·4 조 및 7·5 조의 울독단위에 맞추어서 띄어쓰기 하고 있다. 그러나 신시나 자유시에서는 이러한 울격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비교적 자유롭게 실현되고 있다.

나는 뜻을 질겨 맛노라

그러나 그대 아리사운 태도를 보고 눈이 열이며
 그의 향긋로운 냄새를 맛고 코가 반하야
 (「꽃두고」, <소년> 2년 5권,)

「꽃두고」에서는 현대적 문법에 맞는 띄어쓰기가 완벽히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띄어쓰기 시가의 최종 모습인 셈이다. 이와같이 개화 시가에 있어서 띄어쓰기는 1909년 5월 「꽃두고」에 와서 정착되었고 그 전개과정에서 신시 및 자유시 형성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3. 내재율의 출현

이 내재율은 造語上에 나타 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많은 예는 없지만 내재율적인 징후를 보이는 造語들이 몇 작품에 산견된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 넌애엇지넌어를보리 / 숨어잇네에 \ 나아오너라나아오너라
 세되면나아오너라너어부우되
 (「국시 2수」, <대한홍학보> 8호, 1909년 12월)
- B) 산형세더욱조타아 / 英雄象傑벳잇나아
 山사람有名ㅎ다아 / 이쇼래에다아놀내베
 (「太白山歌」, <대한홍학보> 10호, 1910년 2월)

예시와 같이 내→넌애, 잇네→잇네에, 나오너라→나아오너라, 너→너어, 부디→부우되, 조타→조타아, 잇나→잇나아, ㅎ다→ㅎ다아, 다→다아 등으로 길게 연철되어 있다. 이런 연철표기가 개입됨으로써 4·4 조 가사의 딱딱한 울격을 깨뜨리고 시적 가락과 호흡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위 두 편은 3·4 조 및 4·4 조의 가사울격이었는데 이러한 조어방식이 채택됨으로써 정형의 틀이 파괴되고 자유율의 호흡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내재율의 출현은 비록 몇 예에 그치지만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시적 호흡의 변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논의한 바 구두점의 사용과 띄어쓰기의 출현, 내재율에 의한 정

형틀의 파괴 등은 문체면에서의 국문체로의 이행과 함께 근대시로 지향하기 위한 중요한 시가 양식상의 변모였고 이러한 시험과 모색에 의해서 근대시의 기반이 굳게 다져질 수 있었던 것이다.

V. 결 론

이상으로 개화기의 국한문체의 갈등과 시가문체에 나타나는 변이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 논의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개화기 시가문체의 변이는 당대의 일반 문체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특히 계층구조의 변화와 문체변이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시가창작에서 보수, 사립의 저널리스트 계층은 국한문 특히 漢主國從體의 문체를 택하고 있고, 개화서민 계층 특히 여성 및 기독교 신자계층은 현저히 국문체로 편향되고 있다.

또한 문체선택은 내용표출과도 깊이 관련이 되어 경제적 이념과 척사보수의 이데올로기의 표출에는 한문체 편향으로 기울고 있고 정서 및 개인정감의 표출은 국문체에 의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게하여 (국)한문체—보수사립계층—경제적 이념 및 보수척사사상의 표출이라는 한 갈래와 국문체—개화서민계층—서정 및 개화문명사상의 표출이라는 또 한 줄기로 연결지어진다.

또한 순한문체에서 순국문체로의 문체변이는 다시 漢主國從體, 半漢半國體, 國主漢從體 등의 중간단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순한문체의 漢詩에서 순국문체 시가 등장하기에는 3단계의 문체변이가 있었던 것이다. 국주한중체는 특히 보수계 신문 즉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대한민보>의 시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문자자체의 보수적 속성과 문체적 권위에 힘입어 경제적 이념과 척사저항의 국권의식을 표출코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半漢半國體는 개화기 시가의 보편적 문체로 나타나는데 그 정착과정에서 ‘學道’ ‘학徒’와 같은 단어 자체 내의 갈등과 국문현토식의 문자병기현상도 엿보이고 있다. 국주한중체 및 순국문체의 정착은 <대한학회월보>, <소년> 등 개화기 잡지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층면에서는 기독교신자 및 여성 등 개화기의 신흥 서민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순국문체라 하더라도 文語體에서 口語體로 변이될수록 서정성의 표출이 두드러짐이 주목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난 사항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화기 시가문체의 특성〉

문 체	창작계층	표출내용	이념지향	발 표 매 체
(국)한문체	보수사립계층	이 념	보수척사사상	보수계신문
국 문 체	개화서민계층	이념 및 정서	개화문명사상	학회지 및 잡지

한편 구두법, 띄어쓰기, 내재율의 변화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곧 자유시 형성과 관련되는 요소들이기에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이들의 출현으로 해서 울독호흡, 울격의 짜임새, 의미단락, 시행구성 등의 변화가 초래됐던 것이고 이 변화는 곧 자유시로 전이되는 관건적 요소였던 것이다. 개화기 시가에 나타나는 순국문체 및 구어체 문장의 정착과 띄어쓰기, 구두법, 내재율의 출현은 곧 자유시 형성의 정지작업에 직결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화기 시가의 문체변이와 조사법의 문제는 더욱 깊이 있게 천착돼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1970.
2.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 연대출판부, 1983.
3.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4.
4. 조연현, 『한국신문학고』, 문화당.
5. 김병철, 『한국근대 서양문학이입사』, 울유문화사, 1980.
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부, 지식산업사, 1986.
7. 하성래, 「한국어문학에 끼친 천주교의 영향」, 〈국어국문학〉 94 호.
8.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4.